

# 창호 제조업체 '환경인증 대란'

내달부터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미달땐 공공조달시장 퇴출

## "검사 대기만 수개월" 지역업체들 발동동

창호 제조업체들이 '환경인증 대란'에 빠졌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에 따라 10여개의 창호제품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기간도 수개월 걸리기 때문이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정부·지자체 등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19일 충청·호남알루미늄협동조합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창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제품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5등급에 미

치지 못하는 창호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퇴출된다. 자동차·냉장고 제품에는 이미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당장 다음달부터 등급제가 시행되는데 검사기간이 3~4개월이 소요되고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창호업체는 한 업체 당 최소 8종의 창호제트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아직까지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4개 세트만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35개 창호업체 중 8개 제품 모두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5개 중견업체들도 4개 제품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창호업체 대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창호제품도 7월부터는 실측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며 "실측 기간만 한 달 가량 소요되고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을 고려하면 내기 기간만 3~4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현재 등급을 받은 제품도 3~4등급 수준이어서 앞으로 등급을 올려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다.

또 다른 창호업체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에 뛰어들려면 에너지효율이 2등급은 해야 한다"며 "이미 판매 부분 제품들이 3~4등급 수준이어서 앞으로 다시 등급 검사를 받아야 하

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검사비용도 부담이다. 창호제품 1세트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1000만~1200만원이다. 측정 비용이 300만원이고 샘플 제작비·운반비·설치비가 700만~900만원 든다. 8개 세트 모두 등급을 검사하면 8000만~9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박점주 충청·호남알루미늄공업 협동조합 상무는 "주택건설시장 침체인데이가 에너지등급제 추가되면 서 중소 창호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준비가 부족한 중소 창호업체들을 고려해 일정기간 등급제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쾌적한 여름 나세요"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구매장에서 직원들이 항균기능이 있는 대나무자리 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전남 농식품 수출 27% 증가

5월까지 1억7600만 달러…주류·전복·미역 順

올해 광주·전남 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이 5월 말까지 1억76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1억3900만 달러)보다 27.1% 증가했다.

19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에 따르면 광주는 5800만 달러로 지난해 4400만 달러보다 30.5%, 전남은 1억 1800만 달러로 지난해 9400만 달러보다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5월 4만6086가구(수도권 1만7408가구, 지방 2만8678가구)가 인허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방 인허가 실적은 작년 같은 달보다 72.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1217가구로 49.9% 늘었고 기타 주택은 2만4869가구로 34.0% 증가했다.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 달 준공 실적도 작년 같은 달보다 51.1%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의 다가구, 연립주택의 준공 실적은 104.3%

## 5월 주택 건설 인허가 전년동기비 40% 증가

지난달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작년 같은 달보다 40.9%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5월 4만6086가구(수도권 1만7408가구, 지방 2만8678가구)가 인허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방 인허가 실적은 작년 같은 달보다 72.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1217가구로 49.9% 늘었고 기타 주택은 2만4869가구로 34.0% 증가했다.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 달 준공 실적도 작년 같은 달보다 51.1%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의 다가구, 연립주택의 준공 실적은 104.3%

나 급증했다. /연합뉴스

축산물은 328만5000 달러로 6.2%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밭효주 등 주류 4800만 달러, 전복 1600만 달러, 미역 1500만 달러, 김 1200만 달러, 뜨 800만 달러, 유자차 700만 달러, 파프리카 600만 달러 등이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일본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9.2%), 중국(8.3%), 홍콩(8.0%), 미국(4.1%) 순으로 나타났다.

5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은 30억3700만 달러로 지난해 28억8500만 달러 보다 5.3%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광주·전남지역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현 지사장은 "농식품 수출 증가는 일본의 대지진 여파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과 첨단해역 수산물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aT·수출업체·지자체가 삼위일체가 돼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한 결과"라

며 "수출원에 전문 생산단지 육성,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농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운행활성화 자금 등 수출업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농식품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기자 song@kwangju.co.kr

## 전남FTA 활용지원센터 전문인력 팀 구성

## 中企 방문 1대1 수출입 컨설팅

전남FTA 활용지원센터가 한미 FTA 등 각종 FTA 협정에 따른 수출입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벌인다.

현장 상담은 각종 FTA가 속속 발효되고 있으나 각 협정별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한데다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신청을 받아 1대1 맞춤형으로 진행

된다.

전담 관세사와 센터 직원 등이 하나가 된 현장 컨설팅팀은 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 판정에 부터 국제통일상품분류번호(HS Code) 판정,

FTA 업무 매뉴얼 작성,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의 서류작성법,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 등을 기업 현장 방문과 1대1 컨설팅을 통해 즉석에서 해소준다.

또 수출입통관, 관세 환급, 구매 확인서 발급 등 관세 관련 전문분야는 관세사의 전담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FTA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험망하는 지역 수출입 기업은 전남 FTA 활용 지원센터(061-282-9774·www.jepa.kr/fta)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오주승 전남FTA 활용지원센터 본부장은 "한·미 FTA 협정과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는 등 이제 FTA는 대외 무역환경의 대세가 됐다"며 "FTA가 전남지역 수출입 기업에 당장은 위기이지만 이를 중대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해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광주 상무지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라마다호텔 맞은편 496가구…3.3㎡당 600만원대 분양가 저렴

주택경기 불황을 타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틈새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 전 속도가 빠르고 토지매입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 시세가 일반 아파트보다 20% 가량 저렴해 최근 업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광주에서도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건립된다.(조감도)



자금관리로 사업 안전성이 높고 3.3㎡당 600만원대로 인근 지역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는 등 편리한 주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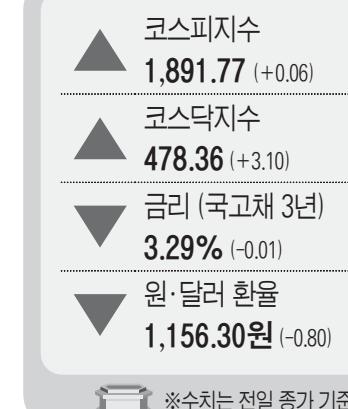
주상복합아파트로 전용면적 84㎡(35평형) 480가구와 116㎡(49평형) 16가구 등 총 496가구로 구성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는 금융비용, 시행사 운영비 및 마진 등 공사단가가 높아지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

해 거품을 뺀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부지도 확보된 데다 전매제한 규정도 없고 조합원까지 50% 가량 모집된 상태여서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집 마련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토지를 매입한 후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 현지 여행사

##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 마진을 돌려드립니다]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im.net](http://www.jejuim.net)

• 등록번호 : 616-81-682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

주소장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제주도 여행 2박 3일

목포 119,000원  
녹동 142,000원

가족끼리, 친목, 산악회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제주여행 다시 찾을 수 있는 **제주무궁화 관광**이 되립니다~

### 목포출발

**『목카투어』  
119,000원**

-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00) 출발 - 호텔 1박
- ▶ 2일째 : 제주관광+한라산등반 - 호텔 1박
-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00) 출발 - 일요일 16:30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치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크루즈투어] 85,000  
(한라산 등반+1일 제주관광)

### 녹동(고흥)출발

**『녹동투어』  
142,000원**

- ▶ 1일째 : 녹동남해고속터미널 (09:00) 출발 - 호텔 1박
- ▶ 2일째 : 제주관광+한라산등반 - 호텔 1박
-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00)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치량료, 입장료, 주차료

[3박4일크루즈투어] 155,000  
(한라산 등반+1일 제주관광)

###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83,000원 [주중+주중]  
196,000원 [주중+주말]**

★유료 할증료 볼포함★

제주도 매일버스일주관광  
1일 20,000원 / 2일 30,000원

한라산 매일 셔틀버스 운행  
한라산 등반 15,000원

제주도 배편 최대 할인

목포, 녹동, 완도, 장흥, 삼천포, 인천

문의 ☎ 064-744-1109

협찬 : 남해고속씨월드훼리

